

# 수 학 보 고 서

소 속	사회과학대학 국제통상학과	
파 견 국 가	스페인	
파 견 대 학	Universidad Francisco de Vitoria	
파 견 기 간	시작	2025년 1월 (년/월)
	종료	2025년 5월 (년/월)

준 비 과 정	<b>국제교류프로그램에 지원하기까지 과정</b>
	<p>평소 다른 문화를 접해보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늘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, 새로운 문화 속에 현지인들과 교류하며 생활해보고 싶었습니다. 제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실현해보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</p>
	<b>파견교 지원 과정</b>
	<p>지원하기에 앞서 어학점수 토익을 먼저 준비했습니다. 모집 공고가 올라온 후, 서류 지원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였습니다. 서류 합격 후, 면접을 준비하였는데 이 과정이 가장 어려웠던 점인 것 같습니다. 한번도 영어 면접은 해본 적이 없었기에 더욱 긴장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예상 면접 질문들을 만들고 그에 맞는 답변들을 키워드 중심으로 외우면서 준비하였습니다.</p>
	<b>파견국가 출국 준비 과정 (비자, 항공권, 준비물 등)</b>
	<p>교환학생 프로그램에 합격 후, 가장 먼저 한 일은 항공권 예매였습니다. 항공권은 출국일이 가까워 질수록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빠르게 예매하였습니다. 항공권을 예매할 때에는 국제학생증이 있으면 학생할인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참고하였습니다. 그 후, 출국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비자 발급을 준비하였습니다. 스페인의 경우,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 준비도 복잡하였고 비자 신청을 위해 대사관에 방문 예약을 잡는 것도 쉽지 않다는 후기를 본 적이 있어 최대한 빨리 예약을 잡았습니다. 이후 파견교의 국제교류처에서 메일로 해야할 것들에 대해 잘 알려주셔서 입학허가서 서류도 한 달 정도 후에 빠르게 받을 수 있었고 다른 준비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.</p>

파견 학교	<b>공항 픽업 &amp; 오리엔테이션</b>
	<p>학교 측에서 따로 공항 픽업을 오진 않았습니다.</p> <p>오리엔테이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두번 이루어졌으며 두번 모두 필참이었습니다. 온라인 OT는 영어 버전과 스페인어 버전으로 각각 진행되도록 하여, 각자 원하는 언어로 들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. 파견교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스페인에서의 생활, 거주지 마련 등 생활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부분들도 알려주었습니다. 이후 오프라인 OT는 조를 나누어 현지 버디들과 학교를 돌아다니고 이후 모든 교환학생들과 로컬 버디들이 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과 스낵 타임을 가졌습니다.</p>
	<b>수업 &amp; 학교 활동</b>
	<p>수업은 로컬 학생들이 듣는 수업 뿐만 아니라 교환학생들이 듣는 International class도 있었습니다. 학교 활동은 학기가 시작되기 전 파견교 측에서 메일로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들의 일정을 보내주면서 버디 신청과 활동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. 저는 따로 신청하지 않았지만, 신청하지 않아도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기에 몇 번 버디 프로그램에 참가했었습니다.</p>
주변 환경	<b>기숙사 및 학교 내 편의 시설</b>
	<p>교환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는 따로 제공되지 않아 집을 구해야했습니다.</p> <p>학교 내에는 자판기나 학식당 등이 많아 메뉴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. 또한 학교 내에 수영장과 헬스장이 있어 금액을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었고, 그 외에도 탁구장이나 테니스장 등의 운동 시설은 학생증이 있으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.</p>
주변 환경	<b>거주지 주변 지역 정보</b>
	<p>저는 Moncloa역 근처에서 piso를 구해 살았습니다. 학교가 마드리드 중심지에서 좀 먼 곳에 있는데 이 지역에서 학교까지 20분 만에 가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근처에 살지 않는 학생들도 대부분 이 지역에서 환승하여 이 버스를 타고 갑니다. 저는 그런 환승없이 바로 갈 수 있었기에 학교 다니기에 편했습니다. 또한, 마드리</p>

	드 시내와 별로 멀지도 않고 치안도 좋았습니다. 마드리드는 26세 이하는 8유로로 교통카드 무제한권을 이용할 수 있어 교통을 이용하기도 무척 좋았습니다.
	<b>파견 대학 소재지 지역 정보</b>
	마드리드는 스페인의 수도지만, 다른 지역들에 비해 관광객이 많이 없는 편이었습니다. 그래서 현지 느낌을 더욱 느낄 수 있고, 외식비는 비싸지만 식재료 값은 한국보다 저렴하여 좋았습니다. 대중교통도 너무 잘 되어있는 데다가 8유로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었기에 이동하는 것이 매우 편했습니다.
비 용	<b>등록금 (해당 학생만)</b>
	해당없음
	<b>기숙사 비용 (해당 학생만, 학기당)</b>
	해당없음
	<b>추가 비용 (교재비, 보험 등)</b>
	파견교 교수님들께서 수업 자료를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주셔서 따로 교재비가 들진 않았습니다. 보험은 출국하기 전에 비자 준비에 필요한 보험 외에는 따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.
	<b>생활비</b>
	스페인인 한국처럼 원룸이 아니라 한 집에 여러 명에서 각자의 방과 함께 거주하는 Piso에서 생활합니다. 저는 월세로 70만원 정도 지출하였으나 이는 집마다 천차만별입니다. 제 경우 매우 저렴한 편에 속했습니다. 집은 idealista나 spotahome 사이트에서 또는 스페인 카페에서 올라오는 매물로 구할 수 있습니다. 저의 생활비는 대부분 식비로 지출되어 한달에 40-50만원 정도 지출하였던 것 같습니다. 스페인은 식료품 값이 매우 저렴하여 직접 해먹는다면 지출을 더욱 줄이실 수 있으실 겁니다.

	<p>그 외에도 교통카드 무제한권 한 달에 8유로, Vodafone 핸드폰 요금제를 저는 10유로 짜리 이용하였습니다.</p>	
	<p><b>한달 평균 지출 비용</b></p>	
	<p>저는 달마다 여행을 두 번 이상은 갔었습니다. 그래서 월세와 생활비, 여행비 다 합쳐 달마다 평균적으로 230만원 정도 지출하였던 것 같습니다.</p>	
<p><b>교환학생 기간 동안 느낀 점</b></p>		
<p>처음에는 언어장벽이 영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까지 있고 낯선 환경 속에서 적응하느라 힘들기도 하였습니다. 하지만 이 경험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어준 것 같습니다. 낯선 환경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스스로 많은 것을 해결하면서 자립심이 생기게 되었고, 다른 문화의 친구들과 친해지며 처음에는 너무나 크게 느껴졌던 언어장벽이 점차 무너지면서 제 언어 실력도 향상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또한, 한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할 수업 방식이나 분위기를 경험해보며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. 이번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성장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</p>		
<p><b>사진 첨부 (최소 5장)</b></p>		
		



